山东大学韩国学院
韩国研究丛书

东北亚
近代文化交流关系研究

[韩]崔博光　主编

山东大学出版社

东北亚近代文化交流关系研究

主　编　[韩]崔博光
副主编　牛林杰　刘宝全

山东大学出版社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东北亚近代文化交流关系研究/[韩]崔博光主编．—济南：山东大学出版社，2008.8

ISBN 978-7-5607-3649-5

Ⅰ．东…

Ⅱ．崔

Ⅲ．文化交流—文化史—研究—东北亚—近代

Ⅳ．K310.3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8)第 136006 号

山东大学出版社出版发行

(山东省济南市山大南路 27 号　邮政编码:250100)

山 东 省 新 华 书 店 经 销

山东省恒兴实业总公司印刷厂印刷

850×1168 毫米　1/32　14.25 印张　356 千字

2008 年 8 月第 1 版　2008 年 8 月第 1 次印刷

定价:28.00 元

版权所有,盗印必究

凡购本书,如有缺页、倒页、脱页,由本社营销部负责调换

서를 대신해

[韩] 崔博光 (山东大学韩国学院)

21세기의 지구촌에는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20세기가 전쟁과 냉전이란 틀 속에서 반목과 대립, 억압과 살상, 그리고 파괴란 이름으로 점철되는 세기였다고 한다면, 금 세기는 보다 장미 빛으로 예견된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에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늘날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공생 공존을 위한 우호와 협력의 정신, 무분별한 기술 개발로 인해 황폐화된 자연에 대한 경외와, 자연과의 화해이다.

글로벌리즘의 선결 조건은 무엇보다도 경계라는 장벽을 물어뜨리는 일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인간 상호간의 마음의 장벽으로 시작해서, 언어의 장벽,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경계를 허무는 장벽이 서서히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주대륙의 연합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발맞춰, '동아세시아 공동체' 구성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더해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동북아세아 3국의 공동체'구성이 보다 현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5월에 산동대학 한국학 대학이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의 주제인 '쇄국에서 다위니즘의 세계, 그리고 비전'은 이런 취지에서였다. 이를테면, 지나간 세기에 대한 '문화기억'과 앞으로의 동북 아세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탐색하고자 한 의도에서 기획한 것이다, 특히 동북 아세아에서 위해란 지역이 지닌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제간의 영역, 페

널리스트의 연령층도 철저하게 고려해 기획하였다.

여기에 수록한 논문은 당시 발표한 논문 중에서 토론, 수정, 첨삭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엄선해 수록한 것이다. 따라서 편집 과정에서 수록하지 않는 발표자들의 논문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금할 길 없다. 발표자 모든 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작업이 문화란 파장 속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8. 2.

위해 서실에서

최 박 광 적음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在“东北亚近代文化交流关系国际学术研讨会”上的讲话

赵玉璞（山东大学威海分校副校长）

今天由中、日、韩三国的学术机构和大学共同主办的学术会议在我校召开。对此，我们深感荣幸，在此我代表山东大学，对来自各国内外的各位来宾表示热烈欢迎，并致以崇高的敬意。

本次学术会议的核心内容将围绕东亚文化而展开，这是一个令人十分感兴趣的议题。东亚文化，尤其是以中、日、韩三国为代表，具有共同的儒学文化哲学的东北亚文化圈，是世界文化中的一个极为独特的文化学元。这一文化历经数千年的绵延不绝的发展，在当今世界上显现着其迷人的魅力。在人的改造、自然的改造、社会的改造中发挥了并将继续发挥着巨大作用。尤其是近几十年来随着东北亚地区经济的高速发展和社会的快速转型，东亚文化的功绩和价值以及在解决当今世界上诸多矛盾问题中所起的作用引起了全球的瞩目。同时我们看到，人类文化数千年的发展过程中，不同文化的交流、借鉴和融合从未像今天这样频繁便利，但也应看到，不同文化的对应、撞击和冲突也从未像今天这样剧烈和尖锐。而全球化、信息化则进一步强化着这两种既联系又矛盾的过程的现实。作为“双刃剑”，全球化、信息化既促进了文化的交流，又加剧了文化的冲突。这正是当前人类文化发展中的一个基

本特征。

在保持不同文化的核心价值的同时，加强不同文化间的交流和融合，在保持不同文化的特色并使之在现代化社会延续下去的同时，促进不同文化间的相互尊重和相互宽容，这是我们理想中的目标。而欲实现这一目标，加强对不同文化的比较和研究无疑是十分必要的。尤其是出于同一文化哲学下的中、日、韩三国，在历经历史上交流、融合、冲突之后，需要以新的视角和新的概念来重新审视我们自己，对文化中的共同性和差异性进行深入的研究和交流，以达到相互的理解、尊重与宽容。尤其威海在112年前曾发生了中日甲午战争(围绕朝鲜)，战争是文化冲突的极端表现。因此此次学术会议的召开是十分有意义的。

各位来宾，女士们，先生们，建校于1901年的山东大学是中国历史悠久的著名大学，是中国教育部直属的全国重点建设的综合性大学，目前在校学生有5.5万人。山东大学威海分校作为山东大学的一部分建校于1984年，目前有学生1.5万人。作为还在建设中的一个大学，山东大学威海分校把对东北亚问题的研究作为一个特色，近年来积极扩大与韩国、日本等共同的交流和合作。我们希望通过这次会议进一步加深与韩国、日本等国家的大学和学术机构的联系。同时也欢迎各位以后常来访问和交流！衷心希望会议取得丰硕成果！

最后预祝会议取得成功，并祝愿各位身体健康！谢谢。

开 幕 辞

牛林杰（山东大学韩国学院院长，暨2007年
国际学术会议执行委员长）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동대학 한국학원의 우림걸입니다. 우선 이번 대회가 순조롭게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 주신 최박광 교수님을 비롯한 산동대학 관계자들과 국제비교문학회 동아시아지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일본 帝塚山대학 국제이해문제연구소와 베이징대학 비교문학연구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산동대학 한국학원은 2003 년에 설립된 중국에서 유일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과대학입니다. 지난 3 년동안 산동대학 위해캠퍼스에서는 한국학을 특색 사업으로 지정하고 적극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학원에서는 한국 관련 저서를 출판하고,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연구를 활발하게 벌려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비약적 발전으로 하여 오늘 내외귀빈들을 모시고 성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 세기는 동아시아의 시대라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축이 바로 중일한 3 국입니다. 3 국은 한자문화권이라는 동질적 문화유산 속에서 오랜 역사적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우호를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를테면 서세동점이란 거센 파고 속에

서 그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우호와 협력보다는 때로는 반목, 심지어 충돌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냉전 체제 속에서 이념적 갈등, 대립이 오랫동안 깊은 골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로벌리즘 하에서의 동아시아 3 국은 공존, 공생을 위한 우호와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협력 기구인 공동체 구성을 위한 논의도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세기의 문화 기억으로서의 사회변혁을 조명해 보고, 새로운 세기에 대한 비젼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회의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해시는 지난 20세기 동아시아 "역사의 기억"이 깊이 관련된 도시로서 오늘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지로 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해시에 소재지로 하고 있는 산동대 위해캠퍼스는 동아시아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연구하는 역사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학원은 앞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지적 탱크로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 참석해 주신 학자 여러분과 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학술대회가 원만하게 개최되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년 5 월 19 일

目　录

序言……［韩］崔博光(1)
在“东北亚近代文化交流关系国际学术研讨会”上的讲话
……赵玉璞(1)
开幕辞……牛林杰(1)

中文论文

我对当代“海洋的日本文明论”的质疑 ……严绍璗 (3)
日俄战争与中国近代文学 ……王中忱(11)
透过共同翻译建立东方的“文本” ……林水福(18)
朴齐家“诗画境相通”论与中国文人画论 ……金　哲(27)
伪满洲国时期朝鲜人文学和中国人文学的比较研究
……朴银淑(44)
20 世纪 30 年代中国左翼文艺刊物中的朝鲜声音
……李大可(60)
大正天皇有关韩国、中国的汉诗作品简介
……［日］古田岛洋介(75)
清末中国接受《社会契约论》之诸相 ……［日］川尻文彦(81)
从雅乐中看日本文化(摘要) ……谌江望(105)

日语论文

近代以后东亚关系的达尔文主义及其动因
……［日］谷口弘行(109)
日本文学的传统与近代……［日］川本皓嗣(129)
徐福东渡日本说与东亚三国的民族意识……［日］柴田清继(140)
一休诗的周边——海棠的形象……［日］岩山泰三(161)
日本18世纪外交论争系谱
——宣长的对外认识研究……［韩］朴钟祐(177)
唐招提寺的中国僧与空海的中国语学习
……［日］上垣外宪一(179)
东北亚的全球化
——对种族划分与民族主义之交错的思考
……［日］佐佐木卫(183)

韩语论文

东北亚文学的传统与同时代诗论……［韩］金容稷(201)
政治的断绝与文学的记忆
——新井将敬和立原正秋的生涯与文学
……［韩］朴钟明(217)
越境的文学，或遭拒的越境
——对韩国文学近代的思考……［韩］申寅燮(236)
悲剧、达尔文主义及叙事巫歌 ……［韩］金昌铉(238)
韩国神话研究中的自我殖民化过程
——以檀君神话一元化为中心……［韩］金泳男(255)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www.ertongbook.com

朝鲜后期明代文学批评小考
——雅亭李德懋为中心…… 魏　红(271)
日本翻译语对韩国、中国影响 …… [韩]崔胤京(314)
从壬辰倭乱看到的文化记忆…… [韩]朴性泰(330)
朝鲜朝后期评点本小说的出现与金圣叹的文学评点
…… 韩　梅(347)
东亚文明观的变化——以朝鲜实学为中心…… [韩]千斗晧(365)
归化人的文学——以〈思庵实记〉为中心…… 贾滋璟(382)
韩国现代诗中体现的内部矛盾样相…… [韩]张仓荣(405)
黄遵宪的近代文明认识探究
——以《日本国志》与《朝鲜策略》为中心…… 于明燕(427)
占领与殖民——《白凡逸志》中的近代东亚…… [韩]黄镐德(439)

中文论文

我对当代“海洋的日本文明论”的质疑

严绍璗（北京大学比较文学与比较文化研究所）

日本在战后的60年间，围绕着社会发展的道路，各种思潮跌宕起伏。现在，在一般的国民意识中“和平主义”（pacifism）确实仍然占据着主流，但是，以“国家主义”（nationalism）和“超国家主义”（super-nationalism）为核心的各种思潮，也一直在不同的层面上此起彼伏，影响着国民的心态，并且广泛而深刻地影响着日本当代社会的发展道路。

从20世纪90年代中后期开始，在当代日本各种发展着的“国家主义”社会思潮中，迅速地发展起了一股关于重新认识“日本文明”的所谓新的“文明史观”。这就是由一部分学者提倡的所谓“海洋的日本文明论”（Concept of Oceanic Japanese Civilization）。这一“文明史观”从日本知识群体向日本市民社会渗透，具有不可忽视的广泛的社会影响。

依据“海洋的日本文明论”的始作俑者川胜平太的阐述，这一思潮的核心观念认为，所谓（古代）“文明”和“帝国”，本来都是以“大陆世界”为舞台诞生的，但是，“大陆世界”代表的是“农业文明”，是已经“过去了的时代”，而“近代国家”则是从“海域世界”产生的。“海洋的日本文明论”不仅以“文化的形态”表现出来，而且从一开始就明确地宣布了意识形态要求，并且伴随有相应的政治

主张。

一、问题的提出——“海洋的日本文明论”挑战东亚文明史事实

1995年，川胜平太在《早稻田政治経済学雑志》上刊出《文明の海洋史観》，1996年出版《海から见た歴史》（东京藤原书店刊）一书，1997年，川胜平太在日本具有“国家电视”性质的NHK以“人间讲座”的形式，连续三个月讲授“近代はアジアの海から”，同年，中央公论社出版了川胜平太的《文明の海洋史観》。从而在20世纪行将结束的时候举起了“海洋的日本文明论”的旗帜。

2000年9月，白石隆由中央公论社出版了他的《海の帝国 アジアをどう考えるか》（《海洋帝国：如何思考亚洲》）一书，呼应川胜平太的“海洋的日本文明论”。2001年，川胜平太出版了《海洋连邦论》（东京PHP研究所刊）一书。此后，2003年，川胜平太又和东京大学教授滨下武志出版了《海と资本主义》（东洋経済新报社刊）。日本学术界在较为宽阔的层面上彼此呼应。“海洋的日本文明论”终于成为极为时尚的“学术”潮流，在当今日本社会愈来愈拥有自己的市场。

川胜平太提出“近代国家”产生于“海域世界”，并告诉我们所谓亚洲的“海洋世界”就是日本。白石隆甚至在《海の帝国 アジアをどう考えるか》中提出这样令人匪夷所思的问题：“日本究竟是不是属于亚洲？”他问道：我们现在说的“日本”，“究竟是亚洲中的日本呢，还是与亚洲并列的日本？”并说道，“大陆亚洲”是农民与乡绅的亚洲，中国至今还维持着这种反“海洋亚洲”的生存秩序，因

此，“海洋亚洲”是中国以外的亚洲。[①] 为论证这一观点，“海洋的日本文明论”者们还张扬起所谓的“世界史”作为“文化语境”。他们煞有介事地说：假如说两千年欧洲的历史是摆脱“伊斯兰化”的历史，那么两千年来日本的历史就是摆脱“中国化”的“脱亚”的历史。这是一个关系到“海洋的日本文明论”生死存亡的至关重要的命题。设置这一命题的最基本的意义在于试图引导人们从根本上“重新认识东亚文明史”的所谓“事实”。为“证明”所谓“两千年来日本的历史就是摆脱‘中国化’的‘脱亚’的历史”，他们提出“两千年欧洲的历史是摆脱‘伊斯兰化’的历史”这样一个伪命题作为比照，从而妄图把“海洋的日本文明论”安置在他们虚构的整个欧亚文明史的“全球框架”之中。

可见，所谓“海洋的日本文明论”就是一种试图从文明史上重新对日本进行世界性定位的“文明史观”。这种“文明史观”以强烈的民族沙文主义的“绝对优越感”为基本宗旨，虚构日本文明脱离接受亚洲大陆文明滋养的基本事实，制造“孤岛文明”的虚假幻影，扭曲日本国民和世界民众关于“东亚文明构建”的心理认知的状态。

二、我们应该怎样考察日本文明史——文明史研究者应该具备的基本逻辑层面

文明史研究者可以有多种具有自己学术个性的研究方式，但

---

① 白石隆等鼓吹的“日本亚洲地位未定论”并不是“海洋的日本文明论”者的新思维。它是19世纪末以来日本国家主义“脱亚入欧论”的一个基本追求。被远东军事法庭宣判为“二级战犯”的日本政客德富苏峰在1904年发表的《东亚的日本与宇内的日本》一文中就有这样的论说：“我的愿望是成为宇内的日本，而不是东亚的日本。具体说来，与其成为东亚的盟主而反击欧西文明的东渐，不如成为欧西文明的先驱，开导东亚诸国。进一步说，推倒东西文明的壁垒，除掉黄白人种的割据，扩大宇内共同文明的范围……作为欧西文明的宣传者对东亚各国，作为东亚文明的引入者对于欧西诸国，对此任务我是毫不犹豫的。”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www.ertongbook.com